

# 띄어쓰기가 관형어절 이해에 미치는 영향

김지혜<sup>○</sup> 남기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feelblue@korea.ac.kr, kichun@korea.ac.kr

## Effects of Spacing Words on Reading Adnominal Eojeol

Jihye Kim<sup>○</sup> Kichun Nam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 요 약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으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얽혀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많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맞춤법 오류에 대한 원인을 찾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맞춤법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우선시하여 맞춤법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 정보 처리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비교적 띄어쓰기 기준이 명확한 관형어절에 초점을 두어 띄어쓰기가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관형사 + 명사’ 구조와 ‘~적 + 명사’ 구조의 관형어절이 포함된 104개의 문장을 가지고 2개의 목록을 만들었다. 목록 간에는 띄어쓰기 여부가 반대이며 피험자는 목록 중 하나를 경험하였다. 하나의 문장을 끊어서 제시하여 피험자는 읽는 데로 space bar key를 누르는 자기 읽기 조절 과제를 시행하였고, 이어서 문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관형어절을 읽는 평균 속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관형어절에 있어서 띄어쓰기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띄어쓰기, 맞춤법, 관형어절, 관형사

## 1. 서 론

1988년 편찬된 한글 맞춤법<sup>[1]</sup> 총칙 제 2항에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씌움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띄어쓰기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 임동훈<sup>[2]</sup>(2002), 이익섭<sup>[3]</sup>(2002), 이선웅<sup>[4]</sup>(2003), 황경수<sup>[5]</sup>(2007) 또한 이것을 띄어쓰기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제 2항의 규정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단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단어를 독립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는 것이나, 독립성 없이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조사 또한 단어로 포함시키고 있어,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둘 것인가? 남기춘(1997)<sup>[6]</sup>은 단어와 구의 중간 형태의 어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발생한다 어절의 명확한 정의와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어절을 띄어쓰기의 단위로 둔 연구를 통해 어절의 독립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읽을 주어 의미적인 중의성을 해결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연결 지음으로써 글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규칙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경향 때문에 실생활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남기춘(1997)<sup>[6]</sup>은 소설, 기사, 전공 서적에서 문장을 발췌하여 녹음한 뒤, 피험자에게 들려 주어 띄어쓰기 규칙에 맞게 받아 적도록 하였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태(2006)<sup>[7]</sup>도 학생들에게 과제로 답사기를 작성하게 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분석하고 나열하였다. 이는 맞춤법 오류에 대한 원인을 찾아 체계적인 교육이나 재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남기춘(1997)<sup>[6]</sup>과 김상태(2006)<sup>[7]</sup>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형어절이다. 다른 구조들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관형어 + 명사’ 구조에 있어서 받아쓰기 과제로 띄어 쓴 비율이 59.1%이나 되고, 학생들이 쓴 답사기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와 명사를 붙여 쓴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가장 우선시하여 맞춤법에 있

어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 정보처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실험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대다수가 관형어절의 띄어쓰기에 있어 잦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형어절을 띄어 쓴 경우와 붙여 쓴 경우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있다면 어느 경우에 더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즉, 띄어쓰기가 관형어절에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더욱 효과적인 구조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 2.1 피험자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수업의 일부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였다. 참여수는 총 47명으로 남자는 29명, 여자는 18명이다.

### 2.2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관형어절로 관형어절 중에서도 <관형사 + 명사> 구조와 <~적 + 명사> 구조이다. <관형사 + 명사> 구조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하위분류를 살펴보면, <성상관형사 + 명사> 구조(예를 들면, ‘흰 옷’), <수관형사 + 명사> 구조(예를 들면, ‘두 사람’), <지시관형사 + 명사> 구조(예를 들면, ‘그 빵’)이며, <~적 + 명사> 구조에서 예를 들면, ‘예술적 감각’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 26개씩 총 104개의 관형어절을 생성하였으며 이 관형어절을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를 큰 구조로 하는 문장 속에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하였다.

104개의 문장은 순서 없이 피험자마다 다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문장의 길이는 6어절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고, 관형어절 안의 글자 수를 제한시키지는 않았으나 최소 3음절에서 최대 7음절이다.

### 2.3 실험 설계

만들어진 104개의 문장을 가지고, 피험자가 경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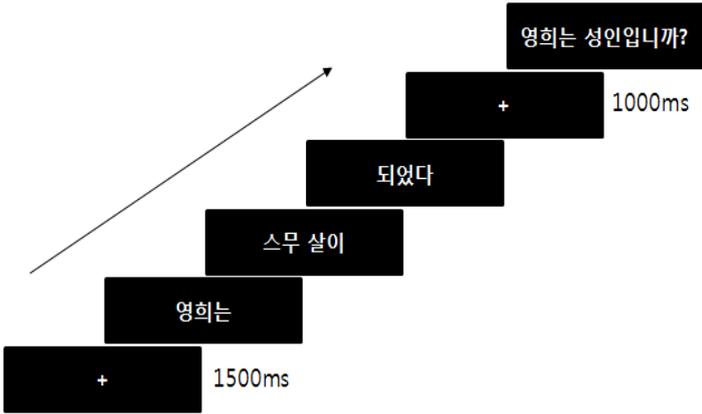
되는 문장 수와 내용은 똑같지만 조건이 다른 두 개의 목록 유형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목록은 104개의 문장 중 관형어절을 붙여 쓴 경우가 52개, 띄어 쓴 경우가 52개가 된다. 목록 1에서 띄어 쓴 관형어절이 목록 2에서는 붙여 쓴 관형어절로 나타나고, 반대로 목록 2에서 붙여 쓴 관형어절이 목록 1에서 띄어 쓴 관형어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피험자는 띄어 쓴 경우와 붙여 쓴 경우를 모두 보게 되지만 같은 내용의 문장에 대해 2번씩 보지는 않는다.

### 2.4 실험 도구

프로그램은 E-prime 2.0을 사용하여 자극을 17" CRT 모니터에 나타나게 하였다. 피험자는 모니터로부터 약 30cm 거리를 두고 앉아 제시되는 자극을 보고 PS2 Keyboard의 key를 눌러 반응하였다.

### 2.5 실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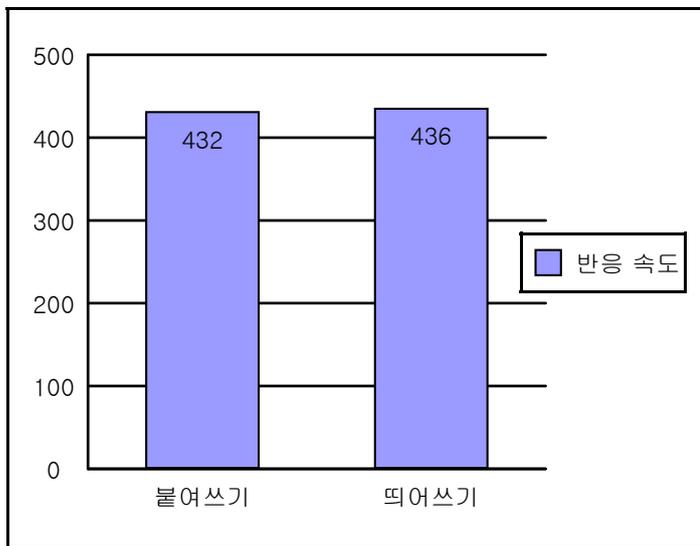
16번의 연습시행 후, 피험자가 실험 방법에 대해 익숙해졌다고 판단되면 본 시행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문장을 한 눈에 들어올 만큼 끊어서 화면 중앙에 제시하였으며, 피험자는 읽는 대로 space bar key를 누르는 자기 조절 읽기 과제(self-paced reading task)를 수행하였다. 한 문장이 끝나면 질문을 통해 이해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해도 검사의 난이도는 방금 전 보았던 문장의 단순 노출로 인한 알은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피험자가 시간을 가지고 대답해야 하는 심도 있는 질문이었다. 피험자는 질문을 읽고 키보드를 눌러 ‘예’ 나 ‘아니오’ 로 반응하였다. 이는 제시된 문장을 잘 읽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이다. 질문이 끝나고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1500ms, 문장이 끝나고 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1000ms의 fixation이 화면 중앙에 나타나게 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반응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주었다



[그림1] 자기 조절 읽기 과제를 이용한 실험 절차

### 3. 결 과

이해도 검사에서 오답을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 104개의 문장에 대해 47명의 피험자가 수행한 평균 읽기 시간을 계산하였다. 피험자가 문장 속에서 관형어절을 읽을 때 소요되는 읽기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1] 관형어절을 붙여 쓴 경우와 띄어 쓴 경우의 평균 읽기 속도

[표 1] 관형어절을 붙여 쓴 경우와 띄어 쓴 경우의 평균 읽기 속도와 표준편차

읽기 속도 실험 조건	평균	표준편차
붙여 쓴 어절	432	127
띄어 쓴 어절	436	133

관형어절을 띄어 쓴 조건과 붙여 쓴 조건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붙여 쓴 경우가 띄어 쓴 경우보다 약간 더 빨랐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4. 논 의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에 관한 여러 기준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대해 완전한 맞춤법 지식 전달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용자들의 부족함일지도 모르나 그보다는 그 기준들이 매우 복잡하여 모두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그동안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여긴 단어의 정의가 불명확함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에 이를 어절로 재설정하고 띄어쓰기의 필수요소인 독립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기준이 뚜렷한 관형어절에 있어서 띄어쓰기 규칙이 미치는 영향의 여부를 알아보고, 띄어쓰기 여부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더 정확하고 쉽게 어절을 이해하는 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실험에서 관형어절의 띄어쓰기 여부에 따른 평균 읽기 속도의 비교를 통해, 관형어절의 일부에 관하여서는 띄어쓰기 규칙이 붙여 쓰거나 띄어 쓰거나 가독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띄어쓰기라는 것은 단지 맞춤법 상의 문제로서 이를 기준으로 인간의 한국어 정보처리 즉 한국어 형태의 정보를 얻고, 생산하고, 전달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조금이나마 정보처리 양상을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법 오류를 검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5. 참고 문헌

- [1] 한글맞춤법. 문교부. 1988
- [2] 임동훈. 띄어쓰기의 현황과 과제 관악어문연구. 27집. pp439~456. 2002.
- [3] 이익섭. 띄어쓰기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생활. 12권, 1호. pp5~16. 2002.
- [4] 이선웅. 띄어쓰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국어국문학회. pp123~153. 2003.
- [5] 황경수. 국어학 : 효과적인 띄어쓰기에 대하여 한국국어교육학회. 75호. pp439~463. 2007.
- [6] 남기춘·최기선·서창원. 한글 맞춤법의 언어공학심리적 고찰(Ⅰ) : 띄어쓰기 실수 분류와 띄어쓰기가 명사+명사 어절과 본용언 + 보조 용언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지과학회. 8권. 3호. p33~44. 1997.
- [7] 김상태. 국어의 띄어쓰기 오류 분석 한국어어미학회. pp11~25. 2001.